

문제 유형이 바뀌었으니 공부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 이제 문법도 ‘공부’ 해야 합니다.

다음은 2015학년도 B형 수능 11번 문제입니다.

11. <보기>의 표준 발음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표준 발음법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해설** 이 조항은 ㉠ 받침 발음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모든 받침은 제시된 7개의 자음 중 하나로만 발음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적용된다. 하나는 ㉡ 자음의 탈락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 ① ‘읽다[익따]’는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② ‘웁는다[웁는다]’는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③ ‘닭지[닥찌]’는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④ ‘웁는다[웁는다]’는 ㉠을 지키기 위해 ㉡, ㉢이 모두 적용되었다.
- ⑤ ‘뵈는다[뵈는다]’는 ㉠을 지키기 위해 ㉡, ㉢이 모두 적용되었다.

정답을 쉽게 찾으셨나요? 참고로 이 문제는 [2015학년도 B형 수능 국어 오답률 1위\(73%\)에 해당하는 고난도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해 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 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문법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음운론’ 영역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이죠.

그러나 실제 시험장에선 **오답률 1위, 무려 73%의 학생이 틀린 문제**였습니다.



##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문제를 본 학생들은 가장 먼저 자음의 ‘탈락’과 ‘교체’를 구분하는 것에만 집중했을 겁니다. 이 개념은 모든 문법서에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답을 구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설** 이 조항은 ㉠ 받침 발음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모든 받침은 제시된 7개의 자음 중 하나로만 발음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적용된다. 하나는 ㉡ 자음의 탈락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 받침 발음의 원칙’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문법서에서도 이 부분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비음화’가 무엇이고, ‘자음군 단순화’가 무엇인지 개념을 주입하고 단순 암기하도록 유도할 뿐이었죠.

## 그러나, 문법의 끝은 다릅니다.

### ① 자음 동화

: 특정 자음이 어떤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 우리말은 자음만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이 만날 때는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지만 자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변동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때, 자음이 변동하는 이유는

크게

- 1) 발음의 편의
- 2) 표현의 명확성

이예요. 이제 이 원리가 매우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말 그대로 불편한 발음을 보완하기 위해서 변동하거나 발음은 불편하지 않은데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 안 될 경우에는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변동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면 음운의 변동에는 들어가지지만, 표준 발음법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니까, 원리를 이해하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자음 동화의 원리를 설명한 후,

㉔ **비음화**[鼻(코-비)音(소리-음)化(변-화)] (안올림 + 올림)

[발음의 편의를 위해 발생]

비음화 ①

: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각각 비음 ‘ㅇ, ㄴ, ㄹ’으로 변하는 현상

예) 밤물 → [밤물], 섭리 → 섭니 → [섭니]

국민 → [궁민], 국물 → [궁물]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입술 소리	혀끝 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안올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거센소리		ㅍ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ㅊ		
	거센소리				ㅉ		
올림 소리	비음		ㄴ			ㅇ	
	유음			ㄹ			

[비음화의 원리]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ㅅ, ㅆ, ㅈ, ㅊ, ㅌ, ㅎ), ㅂ(ㅍ, ㅃ, ㅍ, ㅍ)’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먹는[명는] 달는[단는] 밤물[밤물]

[붙임]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책 놓는다[챙년는다] 옷 맞추다[온마추다]

- 표준 발음법 제5장 소리의 동화

‘비음화’의 정의가 무엇인지 밝혀둔 후,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또 실제 원리가 무엇인지, 실제 한글 맞춤법 조항에선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세세하게 다 넣어 이해를 도왔습니다.

국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 효율’과 ‘실전에 통하는 원리’입니다.

문법 공부는 한 번에 잘, 끝낼 수 있습니다. 잘 잡힌 개념은 어떠한 실전 문제에도 강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올해 교재는 더 세세한 설명과 더 많은 문제들을 담았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이 적용된 문법 교과서, 그간의 EBS 교재에서 언급한 개념들, 7차 교육과정 내의 05학년도 수능, 6월·9월 평가원 문제들과 교육청 문제들을 비롯한 작년 2016학년도 수능 A형·B형 문제들까지 10년치 문법 기출의 총 집약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교재는 어떤 책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문법에 대한 의문없이 개념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여드릴게요.

## 이렇게 공부해보세요.

### 1. 개념을 이해하세요.

시중에 수많은 기출 문제 해설서가 존재하지만, 2015 A형·B형 수능의 문법 부분은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2013학년도 수능까지 2문제에 불과하던 문법 문제가 2014학년도 수능부터 5~6(A형은 11번~15번, B형은 11번~16번)문제로 크게 늘었고, 구체적으로는 ‘비문학[언어]’(현재의 ‘독서’)로 출제되던 부분이 문법으로 전환되어 독해만으로 문제 풀이가 가능했던 이전과는 달리 기본적인 교과 개념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앞서 보여드렸던 문제 역시 바로 그런 개념들이 제시된 문제였고, 이러한 경향은 2014학년도 예비수능, 6월, 9월 모의평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결국 수능 역시 기본적 개념을 전제로 한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수능(2013학년도까지의 수능)과는 달리 6월, 9월, 수능 A형·B형 모두 상위 오답률 5위 문제 안에 문법 문제가 들어갈 정도로 실제로 수험생들 역시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개념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필수적인 문법 개념은 문제를 풀기 위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 2. 외워야 하는 개념은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합시다!

저는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국어능력인증시험(TOKL)’의 문법 강의도 병행했습니다. 벌써 9~10년 전 일인데요. 그 당시에는 특목고 입시에 이 시험이 반영되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교과서에서 다루는 문법뿐만 아니라 자격시험에서 다루는 문법까지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깨달은 점이 있어요.

달달 외워서 문법 문제를 푸는 것이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봐왔으니까요. 그렇지만, 이해하지 않고 외우기만 하는 문법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되고, 떨리는 수능 시험장에선 평소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한 방식은 외울 것을 외우더라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외우자! 였습니다. 외울 개념들이 있다면, 그 개념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느 부분에 주목해야 하고, 실제 시험에선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출제되는지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겁니다. 단순히 개별 사례들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문법에 해당하는 정의가 왜 그렇게 도출되었는지 등을 설명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비음화’라고 하면 대부분의 개념서에서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을 만나 ‘비음 ㅇ, ㄴ, ㄹ’으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이 외에 별다른 설명은 없죠. 그럼 학생들은 이것 그대로 외우곤 해요.

이 개념이 왜 만들어졌고, 이 설명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선 궁금해 하지도 않고 바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비음화가 나올 때 헷갈리게 됩니다. 파열음이었던가 파찰음이었던가, 마찰음이었나, 어떤 음운이 어떤 음운으로 변하는 것이었지? 등등 외울 당시엔 궁금해 하지도 않았던 부분들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식은땀이 나요.



## 이건, 이렇게 이해하세요.

간단하게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을 만나 비음으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때, 비음이 아닌 음운은 안울림 소리이고, 비음은 울림 소리이기 때문에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가 충돌하면 ‘충돌의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안울림이 울림으로 바뀌려고 한다면 문법 개념을 기억하며 이해하는 거죠.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입술 소리	혀끝 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안울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ㅃ		ㅍ	ㅎ		
		된소리	ㅃ	ㅆ		ㅑ			
		거센소리	ㅆ	ㅉ		ㅋ			
	마찰음	예사소리		ㅅ					
		된소리		ㅆ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울림 소리	비음		ㅁ	ㄴ				
유음				ㄹ					

이 때, 안울림은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울림소리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ㅂ’은 ‘ㅁ’으로, ‘ㄷ’은 ‘ㄴ’으로, ‘ㄱ’은 ‘ㅇ’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각각 대응되는 음운을 확인하며 개념을 이해하고 외우기 때문에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어때요? 외울 필요도 없는 개념이죠? ^^

이처럼 외워야 할 개념들은 원리를 이해한 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 3.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 바로 실전에 적용해 봅시다.

기출 문제들을 모아서 풀다보면, 어느 순간 답만 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와 관련된 부분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풀기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수능은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교육과정의 개념이 상당수 반영된 ‘문법’ 영역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법 문제의 기출 문제 분석은 특히, 문제들을 범주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들을 모아서 푸는 것이 아니라 어느 파트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지, 또, 출제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고 보게 되면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의 끝’에선 다른 기출 문제 해설서와 달리 개념 설명뿐만 아니라 개념의 기출 빈도, 출제 중요도를 표시하여 학생 스스로가 직접 난이도와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바로바로 실어 어떤 양상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죠. 이 부분은 교재 활용법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

### 4. 문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교재를 처음 시작할 때의 생각과 끝낸 후의 생각은 크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끝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많이 풀다보면, 점점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틀린 문제는 쌓여가고, 점점 답은 외워지고, 맞췄는데도 뭔가 찝찝하고.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개념을 다 정리하고, 실전에 충분히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틀리는 문제가 확인될 때예요. 아직 개념을 제대로 정리도 안 해보고, 문제도 반복해서 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틀린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맞춘 문제 역시 마찬가지고요.

생각은 종종 행동을 지배합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건 내가 못하는 부분이야.’라는 생각이 나의 능력을 규정짓고 한정짓곤 하죠. 문법은 확실하게만 정리하면 분명히 수능 시험장에서 이후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파트입니다. 계속 한 두 문제씩 발목을 잡던 문법이 쉽게 풀리는 순간, 안심이 될 거고 안심하게 되면 그 때부터 내 원래 실력이 제대로 발휘될 거예요.

**“문법은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야.”**

**바람을 확신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힘내요. 언제나**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 교재 활용법

## 1. 연필은 잠시 내려주세요.

이 책을 공부하려면, 연필은 잠시 내려주세요. 앞으로 하나하나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지만, 수능이란 과목은 외워서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교육과정이 많이 반영되어 개념이 필요한 2016학년도 수능 국어 문법 역시 외우기만 해서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외워야 될 부분들은 제가 철저하게 필기해 두었고, 교재 전체를 컬러로 제작하여 하나하나 중요도에 따라 다른 색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연필은 내려두고, 눈으로 책을 파악하세요. 외워서는 떨리는 시험장에서 제 실력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떠올릴 수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념이 결국 1등급을 만들어 냅니다.

자, 이제부터 ‘이해하는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 2. 문법 개념 구조도

이 책은 일반적인 목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법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도를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사실 수능 국어의 전반적인 부분이 마찬가지로이지만, 문법의 경우 개념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외우기만 하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우더라도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문법 개념 구조도**’는 책의 맨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의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법개념구조도①”

2. 국어의 구조				
2-1. 음운 (음운론)	2-1-1. 음소	① 자음	㉠ 성대의 울림 여부 ㉡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24
		② 모음	㉣ 단모음 ㉤ 이중모음	27
	2-1-2. 운소	장단, 연접, 억양		29
	2-1-3. 음운의 변동		㉥ 음절의 끝소리 규칙	37
			㉦ 비음화	40
			㉧ 유음화	42
			㉨ 구개음화	44
		① 음운의 교체	㉩ 경음화 (된소리되기)	45



이런 구조도는 페이지를 펼칠 때마다 등장합니다.

“문법개념구조도②”



단원의 핵심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들을 생각하며 봐야할 지 떠올리며 개념을 잡아보세요. ^^

“문법개념구조도③”



이건, 각 페이지에 실려 있는 표로 개념의 내용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지를 색(노란색)을 통해 나타내고 있죠. 즉, 해당 페이지에는 ‘음운’ 중 ‘음운의 변동’, ‘음운의 교체’의 하위 개념인 ‘음운의 동화’의 종류들 중 ‘자음 동화’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측하며 봐도 되고, 개념을 정리한 후에 표를 봐도 좋아요. ^-^

### 3. 중요도

㉡ 음운의 동화[同化] 중요도 ★★★★★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운의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자음 단독의 현상을 나타내 주는 규칙임에 비하여, 동화 규칙은 한 음운이 형태소 경계에서 인접하는 다른 음운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음운 현상을 말합니다.

중요도는 이 그림처럼 중요 개념 옆에 바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크게 ☆과 ♣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은 수능에 직접 출제되었던 개념 중 중요 개념을 뜻하고, ★의 개수를 통해 빈출 개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 수능에 출제된 적이 없는 개념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 상 중요 내용인 경우 역시 ♣의 개수로 중요도를 표시했습니다.



#### <해당 개념 기출 유형>

[2015학년도 9월 A형 11번]

자음의 조음방식

[2015학년도 6월 A형 11번]

음절의 특성

[2014학년도 수능 A형 11번]

음운의 변동

[2014학년도 9월 A형 11번]

음운의 변동

[2014학년도 6월 A형 11번]

음운의 변동

## 4. 해당 개념 기출 유형

각 개념이 시작하는 맨 처음엔 교육과정과 함께 실제 그 단원에서 기출되었던 문제 유형들을 모두 담아 한 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출제되고 있는지 학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 스스로 중요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어요.

## 5. 열공 tip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인 부분입니다.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문법은 개념이 제일 중요한 데 교재로 독학을 하다보면 궁금한 부분이 넘쳐나게 돼요. 또, 이해하는 방법도 모르고 덮어두고 외우다 보니 실제 시험장에서 제대로 개념을 활용할 수도 없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념에 필요한 설명들을 하나하나 정성들여 담았습니다.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땐 꼭 열공 tip을 봐주세요. ^-^

#### 열공 Tip! - 자음체계

자음 체계표는 외우지 않아도 좋지만, 적어도 음운 현상들을 공부하는 동안은 참고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 개념을 이해하면 기억력이 훨씬 오래가니까 ^^

'안울림소리'와 '울림소리'를 기준으로 표를 나누어보고, 시계방향으로 돌려가며 '바닷가 횡집' (안울림 소리 부분), '마니와 라' (울림 소리)의 순으로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어. (크게 말하면 좀 칭피할 수 있음^^;) '바닷가'의 '닷'이라는 글자 안에 '드'와 '스'이 같이 있으니 세로로 같은 위치(같은 혀끝소리)인 것을 확인하면 되고, '횡집'의 '횡' 역시 글자 안에 'ㅎ'과 '스'이 있으니 가로로 같은 위치(같은 마찰음)인 것을 확인하면 돼. 진짜 쉽지? ^^

## 6. 선생님의 비밀

이 책 안에 있는 내용 중 의도하지 않고 들어간 부분은 한 부분도 없습니다. 캐리커처도 마찬가지죠. ^^



먼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는 제가 등장하면 중요개념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개념임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등장하면 꼭 집중해 주세요. ^^



그리고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제가 등장하면 어려운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설명이 나오는 것을 의미해요. 개념이 너무 어려우면 어려워하지 말고, 선생님을 찾아 주세요. ^^

## 7. 기출 문제

기출 문제도 의미 없이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각 개념을 완벽히 정리한 후, 해당 개념에 관한 기출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도록 구성했고, 수능은 빨강색, 모의평가는 파랑색, 학력평가는 초록색으로 문제를 구분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바로 어떤 시험의 유형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죠. 일부러 문제에는 난이도나 중요도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풀고 분석해야 완벽한 점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의 모든 문법 문제(비문학 '언어' 문제 포함, 2005학년도 6월·9월·수능부터 2015학년도 6월·9월·수능 & 2014년 전국연합학력평가 3월 ~ 10월까지의 모든 문법 문제)를 실었습니다.

기출 문제 분석은 빠뜨리지 않고, 천천히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 8. 복습하기

이 책을 보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문법 개념들을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보고 책을 덮어둔 채 시험장으로 간다면 완벽한 점수를 장담할 수 없겠죠. 제대로 공부했다면 복습은 틈날 때마다 조금씩만 해도 부담 없이 문법 점수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각 단원의 끝에는 ‘내가 쓰는 핵심정리’가 있습니다. 이곳도 일부러 제가 직접 핵심정리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그 부분만 보려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어차피 중요도와 핵심 내용들은 본문에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단원을 다 공부한 후 중요 내용들을 학생 스스로가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의 맨 끝 부분에 지난 ‘2014 · 2015 · 2016 문법의 끝’으로 공부하여 수능 국어 1등급을 받은 ‘2014 · 2015 · 2016 수능 국어 1등급 검토진’의 교재후기가 있습니다. 선배들이 직접 검토 작업에 참여하며 자신이 교재를 활용하며 썼던 효율적 방법과 책의 장점들이 쓰여 있기 때문에 맨 처음 책을 펼치기 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공부하며 틈틈이 마음을 잡기 위해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끝으로 전체 개념을 다 잡고, 문제도 다 풀었다면 다시 책의 목차를 펴 보세요.

바로, ‘문법 개념 구조도’를 다시 보는 겁니다. 이제 맨 처음 펼쳐봤던 것과 아주 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무의미해 보였던 개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나뉘고 다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문법을 완벽히 공부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 9. 당부의 말

내 능력을 한정짓지 말아요. 그대들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저는 사실 독학으로 내신과 수능을 공부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고1 때 맨 처음 봤던 시험에선 전교 98등에 반 10등을 했던 평범한 학생이었죠. 그 성적을 받고도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금방 성적이 오를 거야. 남들이 말하는 대학 정도는 갈 수 있겠지.’라고요. 그런데, 그 때 담임선생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는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작년 입시 성적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하자면 반에서 5등 안에 들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도 들어가기 힘들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유명한 대학들을 목표로 하고 있던 저에게 담임선생님의 말씀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대학마저 좌절될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정말 꿈이 필요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아무도 내 꿈에 귀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날 이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새벽 6시에 일어나 학교를 가고 아이들이 올 때까지 서서히 밝아오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공부를 했어요. 그게 제일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 채 공부하는 것이. 매일을 울며 방황하며



그렇게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2학년 첫 중간고사, 드디어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반 1등, 전교 1등으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심지어 저 마저도 믿을 수 없었죠. 그 이후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어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계속 전교 1자리수 등수를 유지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아직도 그 시절을 회고하면 가슴 한 켠이 아릴만큼 답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을 이겨내고 나니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것보다 더 힘든 것들도 많다, 이런 경험들도 결국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힘들수록 이런 기억들이 여전히 절 버티게 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선생님이 당부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픔이 될 만큼, 독학이었기에 혼자서 터득하기에 너무 힘들었고, 오래 걸렸던 그 시간, 그 막막함, 그 고통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최대한 그런 시간을 겪지 않고 행복한 수험 생활을 견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기쁨은 함께하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만 제 슬픔은 나누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의 슬픔은 언제든지 나눠주세요. ^^) 선생님 혼자서 힘들고 어려운 짐들은 다 짊어질 테니 우리 학생들은 정말 행복하고, 재밌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하며 제일 보람을 느낄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점수에 맞춰 꿈을 꾸는 학생들을 볼 때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야기를 꺼낼 때에도 자신의 능력을 한정짓지 말아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수능 점수는 정직합니다. 자신에게 떳떳할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내 현재 점수가 얼마든, 내 현재 위치가 어떻든 간에 반드시 그에 맞게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낮은 점수일 때 그 점수에 맞춰 꿈을 꾸려다 좌절하던 학생이 성적이 오른 후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꿈들을 꾸고 있을 때 정말 보람을 느끼거든요.

힘내요. 이 책이, 제가, 여러분들의 꿈의 실현의 순간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웅장한 모습을 모두 보여주지 않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니까요. 빙산은 억지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스스로 단단해지는 것으로 존재를 입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견고하고, 단단한, 아름다운 그대들의 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 문법 개념 구조도

## [1] 국어와 얹

### 1. 언어의 본질

1-1. 언어의 특성	① 언어의 기호성 ② 언어의 자의성 ③ 언어의 규칙성 ④ 언어의 체계성 ⑤ 언어의 창조성 ⑥ 언어의 사회성 ⑦ 언어의 역사성	18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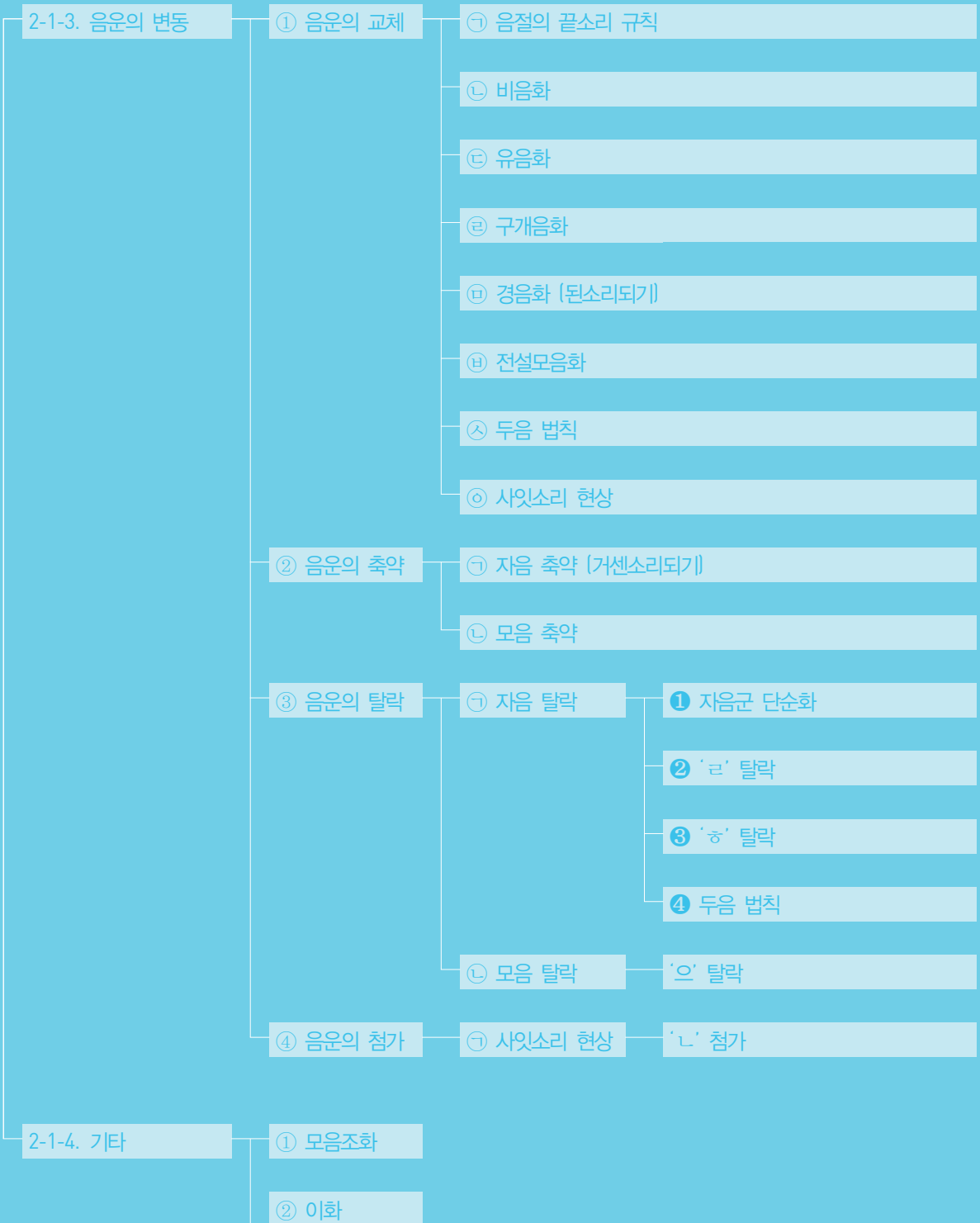
### 2. 국어의 구조

2-1. 음운 (음운론)	2-1-1. 음소	① 자음	㉠ 성대의 울림 여부 ㉡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22
		② 모음	㉠ 단모음 ㉡ 이중모음	25
	2-1-2. 운소	장단, 연결, 억양		27
	2-1-3. 음운의 변동	① 음운의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34
			㉡ 비음화	38
			㉢ 유음화	40
			㉣ 구개음화	42
			㉤ 경음화 (된소리되기)	43
			㉥ 전설 모음화	45
			㉦ 두음 법칙	46
		㉧ 사잇소리 현상	47	
	② 음운의 축약	㉠ 자음 축약 (거센소리되기)	49	
		㉡ 모음 축약	49	
	③ 음운의 탈락	㉠ 자음 탈락	① 자음군 단순화 ② 'ㄹ' 탈락 ③ 'ㅎ' 탈락 ④ 두음법칙	51
㉡ 모음 탈락 ('으' 탈락)		54		
④ 음운의 첨가	㉠ 사잇소리 현상	'ㄴ' 첨가	55	
	㉡ 반모음 첨가	55		
2-1-4. 기타	① 모음조화 ② 이화		57	
2-2. 단어 (형태론)	2-2-1. 형태소	① 형태소의 종류	㉠ 실질 형태소 ㉡ 형식 형태소 ㉢ 자립 형태소 ㉣ 의존 형태소	72
		② 이형태의 종류	㉠ 음운론적 이형태 ㉡ 형태론적 이형태	74
	2-2-2. 단어	① 단어의 형성	㉠ 여간	78
			㉡ 어미	78
			㉢ 어근	78
			㉣ 접사	① 접두사 ㉠ 파생 접두사 ② 접미사 ㉠ 파생 접미사 ㉡ 굴절 접미사
	② 단어 형성 방식	㉠ 단일어	80	
		㉡ 복합어	① 합성어 ㉠ 통사적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81
② 파생어 ㉠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			85	

	2-2-3, 품사	① 불변어	㉠ 체언	❶ 명사		95		
				❷ 대명사		95		
				❸ 수사		95		
			㉡ 수식언	❶ 관형사		㉠ 성상 관형사 ㉡ 지시 관형사 ㉢ 수 관형사	103	
				❷ 부사		㉠ 성분 부사 ㉡ 문장 부사	103	
				❶ 조사		㉠ 격조사 ㉡ 접속 조사 ㉢ 보조사	105	
			㉢ 관계언	❶ 조사		㉠ 격조사 ㉡ 접속 조사 ㉢ 보조사	105	
			㉣ 독립언	❶ 감탄사		111		
			② 가변어	㉣ 용언	❶ 동사		113	
					❷ 형용사		113	
		㉣-1. 용언의 활용		❶ 선어말 어미		118		
				❷ 어말 어미	㉠ 종결 어미		120	
					㉡ 비종결 어미	㉣-1. 연결어미	㉠ 대등적 연결 어미 ㉡ 종속적 연결 어미 ㉢ 보조적 연결 어미	120
						㉣-2. 전성어미	㉠ 명사형 전성 어미 ㉡ 관형사형 전성 어미 ㉢ 부사형 전성 어미	120
					2-3. 문장 (통사론)	2-3-1. 문장의 성분	① 주성분	㉠ 주어 ㉡ 목적어 ㉢ 보어 ㉣ 서술어
		② 부속성분	㉠ 관형어 ㉡ 부사어		149			
		③ 독립성분	㉠ 독립어		149			
			2-3-2. 문장의 구조	① 흘문장				154
				② 겹문장	㉠ 안은 문장	❶ 명사절을 안은 문장 ❷ 서술절을 안은 문장 ❸ 관형절을 가진 안은 문장	❹ 부사절을 가진 안은 문장 ❺ 인용절을 가진 안은 문장	155
					㉡ 이어진 문장	❶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❷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157
2-3-3. 국어 문법 범주	① 종결 표현			㉠ 평서문				166
		㉡ 명령문		❶ 직접 명령문 ❷ 간접 명령문				
		㉢ 청유문						
		㉣ 의문문		❶ 판정 의문문 ❷ 설명 의문문 ❸ 수사 의문문				
		㉤ 감탄문						
	② 높임 표현	㉠ 주체 높임법		❶ 직접 높임 ❷ 간접 높임		171		
		㉡ 객체 높임법						
		㉢ 상대 높임법	❶ 격식체	㉠ (아주높임) 하십시오체 ㉡ (예사높임) 하오체 ㉢ (예사낮춤) 하게체 ㉣ (아주낮춤) 해라체				
			❷ 비격식체	㉠ (높임) 해요체 ㉡ (낮춤) 해체				
	③ 시간 표현	㉠ 시제		❶ 과거 시제 ❷ 현재 시제 ❸ 미래 시제		178		
		㉡ 상		❶ 진행상 ❷ 완료상		180		
	④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 피동 표현		❶ 파생적 피동문 ❷ 통사적 피동문		185		
㉡ 사동 표현		❶ 파생적 사동문 ❷ 통사적 사동문		186				
⑤ 부정 표현	㉠ '안' 부정문		❶ 긴 부정문 ❷ 짧은 부정문		193			
	㉡ '못' 부정문		❶ 긴 부정문 ❷ 짧은 부정문					

# 2-1. 음운

## 2-1-3. 음운의 변동 & 2-1-4. 기타





**<해당 개념 기술 유형>**

[2016학년도 수능 A형 11번]

음운의 변동

[2016학년도 9월 A형 11번]

음운의 변동

[2016학년도 6월 A형 11번]

음운의 변동

[2015학년도 수능 A형 11번]

모음의 변동

[2014학년도 수능 A형 11번]

음운의 변동

[2014학년도 9월 A형 11번]

음운의 변동

[2014학년도 6월 A형 11번]

음절 끝소리 규칙

[2011학년도 9월 12번]

표준 발음의 원리

**열공 Tip! - 음운의 변동**

‘음운의 변동’은 ‘음운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 다섯 개 보이지? 엄청 중요하다는 거야.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는 개념들은 모두 여기에서 나오니까!

각각의 문법 현상들을 이해한 후 그 현상들이 포함되는 변동의 범주를 분류해서 공부해야해.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이제 조금 긴장하고, 집중!!



2-1. 음운	2-1-3. 음운의 변동	① 음운의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비음화
			㉢ 유음화
			㉣ 구개음화
			㉤ 경음화 (된소리되기)
			㉥ 전설모음화
			㉦ 두음 법칙
㉧ 시옷소리 현상			

**2-1-3. 음운의 변동** 중요도 | ★★★★★

: 한 음운이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일정한 환경에서 연결되는 말에 따라 소리가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개, ‘**발음의 편의**’ 또는 ‘**표현의 명확성**’을 목표로 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표를 염두하며 개념을 정리하면 좀 더 쉽게 개념을 체계화 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2015학년도 수능 B형의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11번 문제의 기본 원리를 관통하는 핵심 내용이므로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원리만 이해하면 음운의 변동은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집중해서 봅시다!





2-1. 음운	2-1-3. 음운의 변동	① 음운의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비음화
			㉢ 유음화
			㉣ 구개음화
			㉤ 경음화 (된소리되기)
			㉥ 전설모음화
			㉦ 두음 법칙
			㉧ 사잇소리 현상

### ① 음운의 교체[交替](대치)

: 특정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게 되는 것

####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음절의 끝소리, 즉 받침이 되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가지만 올 수 있다는 규칙.

이외의 자음들은 음절 끝에 오게 되면 이들 가운데 하나로 바뀌게 됩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의외로 실수하는 개념이니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고난도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표준 발음법 中 ‘예외’ 부분이기 때문에 예외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 표준 발음법 제4장 받침의 발음

### ㉡ 받침 중요도 | ★★★★★☆

종류	예
ㄱ, ㅋ → [ㄱ]	닭다 → [닥따], 키웁 → [키웁]
ㄴ, ㄷ, ㄹ, ㅁ, ㅂ, ㅇ → [ㅇ]	웃 → [웁], 있다 → [읷따], 낮 → [납], 꽃 → [꼇], 술 → [숁], 히읷 → [히읷]
ㅍ → [ㅍ]	읷 → [읷]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 《제9항》

받침 ‘ㄱ, ㅋ’, ‘ㄴ, ㄷ, ㄹ, ㅁ, ㅂ, ㅇ’,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 표준 발음법 제4장 받침의 발음

#### 열공 Tip! - 음절 끝소리 규칙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지, 그리고 아 이러니하게도 시험에는 ‘예외’가 훨씬 많이 출제되고, ㅠㅜㅜ 왜냐하면, 출제자 입장에서 자꾸 어려운 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예외를 알기 위해선 기본 개념이 완벽히 잡혀 있어야 하니까 고난도 문제도 수준을 올리기 위해선 바로 이 ‘예외’적인 부분을 물을 수밖에 없거든.

특히, 받침 중 ‘ㄱ’같이 자음에 포함되는 음운은 ‘교체’로 구분하고, ‘ㄱ’같이 두 개의 자음이 합쳐진 음운에서 받침에 일어나는 현상은 ‘탈락’으로 구분하는 건 많은 학생들이 혼동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잘 체크해 뒤. 파이팅!!

# 해설





# 문법의 끝 해설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11번] - (본문 p.29)

## 11 음운의 변동 (개념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식물’이 [싱물]로 발음되는 현상은 ‘ㄱ’이 ‘ㅇ’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음화에 해당된다. ‘입’이 [임]이 되는 현상이나, ‘뜯는’이 [뜯는]으로 발음되는 현상 역시 비음화에 해당하는 데, 이들은 모두 음절 말 자음인 안울림 소리인 ‘파열음’과 이어지는 음절의 초성이 울림 소리인 ‘비음’과 충돌할 경우 생기는 현상으로써, 세 경우 모두 두 자음이 충돌할 때 앞 음절 말 자음이 비음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11번] - (본문 p.29)

## 11 음절의 개념 (개념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끼’의 경우 ‘ㄱ’은 하나의 자음이므로, 초성에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온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보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말의 중성은 모두 모음이다.

③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훈민정음의 중성부용초성(중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 표기법의 원칙에 따라 초성의 자음이다.

④ 초성이 없는 음절은 ‘아, 야, 와, 의’처럼 초성에 ‘ㅇ’이 온 경우로, 초성의 ‘ㅇ’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음에 해당된다.

⑤ ㄱ~ㄹ의 예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말에서는 자음만 발음할 수 없어 반드시 중성인 모음이 오게 된다.

[2014학년도 예비수능 모의평가 A형 11번] - 음운의 개념 (본문 p.30)

## 11 어휘·어법 (음운의 정의) 【정답 ②】

**(정답 해설)** 보기는 ‘음운’의 정의에 관한 글이다. (ㄱ)은 음소(분절음운)의 개념과 예이고, (ㄴ)은 운소(비분절음운)의 개념과 예이다. 이를 통해 음운으로 단어의 뜻이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ㄱ)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지만 (ㄴ)은 문자로 표기하지 않고, 소리의 길이를 실현되어 나타난다.

③ (ㄱ)과 (ㄴ) 모두 음운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④ 자음은 초성과 중성에 사용되고, 모음은 중성에만 사용되므로 어떤 위치든 나타난다는 설명은 옳바르지 않다.

⑤ (ㄱ)과 (ㄴ)은 의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감정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201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A형 11번] - 단모음 체계 (본문 p.31)

## 11 어휘·어법 (단모음 체계) 【정답 ②】

**(정답 해설)** ‘ㄱ’은 전설 모음이면서, 평순, 저모음에 해당하고, ‘끼’는 전설 모음이면서 평순, 중모음에 해당한다. 즉, 전설 모음이면서 평순으로 발음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혀의 높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를 발음할 때에는 ‘게’에 비해 혀의 높이를 조금 더 낮춰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개’와 ‘게’는 모두 평순 모음이므로 입술을 둥그랗게 오므릴 필요가 없다.

③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말아야한다’는 내용은 <보기>에서 찾을 수 없다.

④ ‘ㄱ’은 개모음이므로 입을 더 크게 벌려야 한다.

⑤ ‘ㄱ’과 ‘끼’는 모두 전설 모음이므로 혀의 최고점은 앞쪽에 위치해야 한다.

11 음운의 변동 (개념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㉔의 ‘숯도’가 [숯또]로 발음되는 예나 ㉕의 ‘뉘는’이 [뉘는]으로 발음되는 예는 모두 ‘깃다’가 [깁따]로 발음되는 것처럼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는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오답 해설) ① ㉑의 ‘옳지’가 [올치]로 발음되는 예는 ‘옳-’의 겹받침 중 ‘ㅎ’과 ‘-지’의 초성 ‘ㄷ’이 축약되어 ‘ㅈ’으로 발음되고, ‘좁히다’가 [조피다]로 발음되는 예도 역시 ‘좁-’의 받침 ‘ㅍ’과 ‘-히-’의 초성 ‘ㅎ’이 축약되어 ‘ㅍ’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끓어’가 [끄너]로 발음되는 예는 ‘끓-’의 겹받침 ‘ㅎ’이 탈락한 후 ‘ㄴ’이 연음되었기 때문에 축약 현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쌍이다’가 [싸이다]로 발음되는 예 역시 ‘ㅎ탈락’에 해당한다.

② ㉑의 ‘옳지’가 [올치]로 발음되는 경우는 거센소리인 ‘ㅈ’으로, ‘좁히다’도 [조피다]로 거센소리인 ‘ㅍ’으로 발음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㉔과 ㉕의 예는 적절하다.

④ ‘겉모양’이 [건모양]으로 바뀌는 현상은 비음화인데, 이는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아니라 안올림소리였던 ‘ㄷ’이 올림소리인 ‘ㄴ’으로 바뀌어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현상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얹고’가 [안꼬]로 발음되는 현상은 받침 자음의 일부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된다. ㉕의 예도 자음군 단순화가 사용되었지만, ㉕의 ‘뉘는’과 ‘부역문’은 겹받침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11 음운의 변동 (개념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보기>에서는 모음의 변동의 종류를 들고 있다. 첫 번째로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은 ‘탈락’ 현상이고, 밑줄 친 ㉔의 경우는 ‘축약’ 현상,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는 것은 ‘첨가’ 현상이다. <보기>의 [모음 변동의 사례]를 보면

㉑ 살피 + 어 → [살피]는 ‘피’가 ‘피의 ㅣ’ + ‘어’이기 때문에 단모음 ‘ㅣ’와 단모음 ‘어’가 ‘축약’되어 이중모음인 ‘ㅍ’로 변한 ㉔의 경우에 해당한다.

㉕ 배우 + 어 → [배워]는 ‘워’가 ‘우의 ㅜ’ + ‘어’이기 때문에 단모음 ‘ㅜ’와 단모음 ‘어’가 ‘축약’되어 이중모음인 ‘워’로 변한 ㉔의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㉑ 기 + 어 → [기어]는 ‘여’가 ‘ㅣ’ + ‘ㄷ’이기 때문에 반모음 ‘ㅣ’[j]가 ‘ㄷ’를 만나 변동한 것으로 ‘기 + 반모음 ㅣ’[j] + ‘어’ 즉, 두 개의 단모음 중 ‘반모음 ㅣ’[j]가 첨가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㉕ 나서 + 어 → [나서]는 ‘서’의 단모음 ‘ㅣ’와 단모음 ‘어’가 만나 [나서]로 변동하였기 때문에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진 ‘탈락’ 현상에 해당한다.